

“배움 · 가르침에 높낮음이 없었던 분”

탄허 스님 탄신 100주년 교육이념 세미나

“1967년 역경원이 만들어지며 탄허 스님이 원장으로 개설 당시 역경 연수원 신분이 가까워서 큰 스님을 모셨습니다. 매년 강연 때마다 탄허 스님이 제일 먼저 강연장에 오셔 계시는 것입니다. ‘스님, 스님께서 공부하는 첫째 둘째 손가락 짚는 거로도 부족한 정도인데 어찌 제일 먼저 와서 앉아 계십니까?’ 큰 스님께서 그때 나무라는 말투로 말하셨습니다. ‘불치하문이라’ 공부에는 어린 사람에게도 묻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러한 스님의 학자로서의 정신이 지금 저의 자세를 갖게 했습니다.”

근현대불교의 선지식 탄허 스님의 탄신 100주년을 맞아 스님의 인재양성과 교육이념을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월정사와 한국불교학회 공동 주최로 4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기조발제에서 탄허 스님의 법제자 무비 스님은 탄허 스님과의 인연담을 추억하며 화엄경을 배웠고서는 탄허 스님을 알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무비 스님은 “이후 부산 삼덕사에서 신화엄경합론 교열에 참석했는데 큰 스님은 하루 12시간 씩 교열을 보시면서도 삼보법회나 고려대 강연을 한번도 빼놓지 않으셨다”며 탄허 스님의 정진에 대해 소개했다.

무비 스님은 “역경을 하시면서도 우리에게 항상 ‘공부해라. 이것 하는 이유도 보고 공부하라고 하는 거다’고 하셨다”며 “큰 스님의 원동력은 후학양성에 있었다”고 밝혔다.

무비 스님은 “큰 스님께서 ‘신화엄경합론’을 출간하신 뒤 2년 뒤 월정사에서 화엄산림법회가 열렸다”며 “그 때가 큰 스님의 영산회상이 아닌가 싶다”고 술회했다.

무비 스님의 기조발제 이후 6명의 관련

역경도 후학위한 교재편찬 일환

불치하문, 용맹정진 향상 강조

학자와 전문가들이 나와 다양한 분야에 걸쳐 발표와 토론을 벌였다.

윤선태 동국대 교수는 ‘탄허 스님의 인재양성과 교화활동’에서 ‘탄허 스님이 교육불사를 강조한 이유는 교육이 가장 큰 기쁨이었고 그 깨달음과 조우한 순간이었기 때문’이라며 “그 방대한 역경사업 조차 인재양성을 위한 교재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윤창화 민족사 대표도 ‘탄허의 경전번역의 의의와 강원교육에 끼친 영향’에서 “불교 소의경전을 거의 완역 간행한 작업 자체



무비 스님이 탄허 스님의 교육이념과 사상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는 300여 대중이 운집했다.

가 1966년 인재양성을 위한 오대산 수련원 교재로 사용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이원석 동국대 교수는 ‘출가 이전 탄허의 전통학술 수학과 구도입산의 궤적’에서 ‘출가 이전 탄허 스님에게는 부친의 역경, 필기의 중시와 후천개벽사상, 삼교합일과 정통한학교육 등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광식 동국대 연구교수는 ‘탄허 스님의 교육이념과 정신’에서 “탄허 스님의 교육은 불교를 정점으로 한 동양사상의 생활화와 현대화였다”라고 표현했다.

고영섭 동국대 교수는 ‘탄허의 주역선헬역경과 노자 장자 역해’에서 “탄허 스님이 남긴 수많은 교재들은 일종의 범사리”라며 “수많은 내전의 현토구결, 강술 역해, 외전

역주 등은 한국불교와 사상연구의 기초자료가 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동국대 교수 자현 스님은 ‘탄허 스님의 미래인식과 현대사회의 다양성’에서 “탄허 스님의 사상에는 화엄이라는 모든 가치들의 다양성을 용인하는 정신이 내포돼있다”며 “가치 충돌로 국가와 민족 성장이 저해되는 지금, 탄허 사상이 반드시 재해석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는 월정사 회주 현해 스님을 비롯해 탄허문화재단 이사장 해거 스님, 월정사 주지 정법 스님 등 문도들과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 등 300여 대중이 모여 국제회의장을 가득 메웠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고승들의 시문학 세계를 논하다

동방대학원대 제1회 학술발표회 성황

한국 고승들의 선시를 최초로 고찰한 학술대회가 열렸다. 동방대학원대학교 불교문예연구소는 4월 23일 동방대학원대학교 강의실에서 초과일 기념 제1회 학술발표회 ‘근대 한국고승의 시문학 세계’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동국대 명예교수 법산 스님의 ‘선시란 무엇인가?’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이종찬 동국대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의 ‘한국선시의 특징’, 진관 스님의 ‘백용성 스님의 시문학 세계’, 지원 스님의 ‘효봉 스님의 선시세계’ 등이 발표됐다.

법산 스님은 ‘선시란 무엇인가?’ 기조발제에서 선시에 대해 ‘깨달음의 노래’이며 ‘오도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표출한 언어’라고 정의했다. 법산 스님은 선시를 오도, 종법, 권법, 선기, 종고, 입적 등으로 분류해 고찰 한 뒤 “이는 문자적 시구를 가차하였을 뿐 공안과 다름없으므로 이를 이해하는 것은 또다른 망상에 떨어질 것”이라며 “언어의 그물에 걸리지 말고 직감으로 직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찬 동국대 명예교수는 ‘한국선시의 특징’에서 “언어 자체가 어떤 것을 상징화한 것이기에 언어소통 중 가장 정확한 전달 단계가 상징”이라며 “선적 경지를 상징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선시”라고 설명했다. 이 명예교수는 선시 기법을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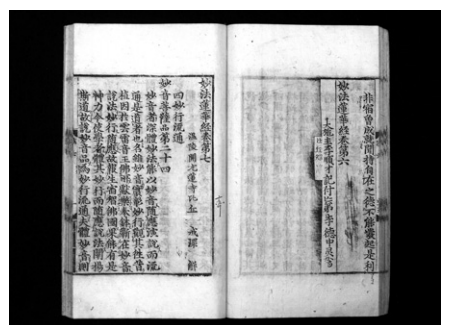
이종찬 명예교수가 선시 구성요소를 설명하고 있다.

침개념을 대입시킨 후 합일시키는 쌍관, 선의 상징을 표현한 비유, 절략된 언어표현인 절려, 사물을 이해하는 여러 방법이 뒤따라 하는 점 등 4가지 방법으로 나눠 설명했다.

진관 스님은 ‘백용성 스님의 시문학 세계’ 발제를 통해 “용성 스님은 선시를 창작하지 못했다”며 “그 이유는 출가해 승려로 살았던 때는 격변과 혼란의 시기였으며, 수행자로서 역할을 다하려 했을 때는 문자를 중요시여기지 않았던 역사만을 추종하던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원 스님은 ‘효봉 스님의 선시세계’에서 “효봉 선사는 일상을 벗어나지 않고 진리에 부합하려는 불반상이합도의 측면이 선시에 나타난다”며 “이는 실천수행을 독려하기 위함으로 선시가 활용됐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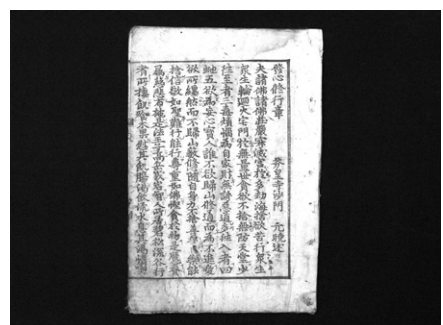
동화사 이순재간행법화경



용연사 육공각법화경



고려시대 목판 최고본 용연사 부모은중경



용연사 발심수행장

현존 최고(最古) 법화경 2책·은중경·발심수행장 발견

불교학술원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사업 결과

동화사·용연사·파계사 등에서 총 978건 조사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현각)이 실시하는 불교기록문화유산 조사사업에서 보물급 불교 고문헌들이 발견돼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은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대구 동화사와 신둔사, 용연사, 파계사에서 불교 고문헌 조사작업 결과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유일본인 <묘법연화경> 2책과 <부모은중경> 1책, <발심수행장> 등 총 4책의 보물급 문헌이 발견됐다

고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묘법연화경> 2책은 성달생 서본(書本)으로서 최초발견된 것이다. 조선전기 판본으로 추정된다.

1564년(명종 19) 이순재(李順才) 가문에서 간행한 <묘법연화경>은 간행 사실은 알려져 있었지만 실물이 발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문헌들은 서지학적으로 <묘법연화경> 변경의 시기별 변화를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이와함께 확인된

<부모은중경> 고려시대 목판본으로서 지금까지 발견된 것 가운데 가장 시대가 올라가는 최고본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높다.

송일기 중앙대 교수는 “1300년경에 판각된 것으로, 현재 통용되는 <부모은중경>과 달리 상중하 3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존 최고의 목판본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송 교수는 “결락상대가 없이 완전한 판본이라면 충분히 보물로 지정될 만하다”고 그 가치를 전했다.

이와 함께 <발심수행장>도 지금까지 발견된 것보다 시대가 앞서는 것으로 학술·문화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헌으로 평가받고 있다. 노덕현 기자

일고려미술관 비공개 한국문화재 조명

목조불상을 비롯해 일본 교토 고려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한국문화재를 집중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렸다.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소장 석문)와 문화유산연구소(소장 이태호)는 4월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정조문과 일본 교토 고려미술관’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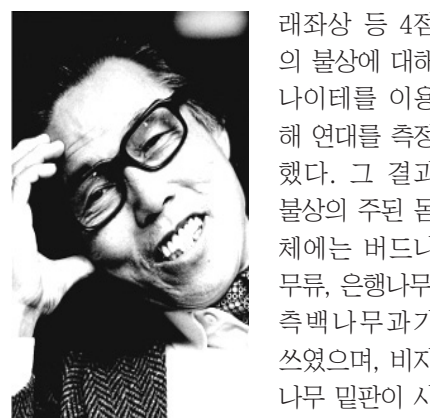
고려미술관은 재일동포 사업가인 정조문(1918-1989) 사장이 평생 모은 한국문화재 1700점을 바탕으로 1988년 설립했다.

고려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불교미술품은 34점으로 불상은 금동여래입상, 철조여래좌상, 목조아미타삼존불감, 석조여래좌상, 목조동자상 등 14점이다.

이중 그동안 연구가 진행된 것은 1689년 호남 지역에서 조성된 목조아미타삼존불감이 유일하다. 이날 학술대회에선 고려미술관 소장 불상에 대한 연구발표가 공개됐다.

최선일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은 고려미술관에 소장된 목조보살입상이 16세기 후반 제작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박원규 충북대 교수는 목조보살입상, 목조아미타삼존불감, 목조동자상, 목조여



정조문 소장

이들 불상에 대한 절대연도 부여에는 실패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선 △고려미술관 소장 정조문(정희두 고려미술관 상무이사) △고려도자 문화와 일본 고려미술관 소장품(박정민 한울문화재단연구소 팀장) △고려미술관과 덕성여대 박물관의 공동전시 에 대해(박은순 덕성여대 교수) △고려미술관 소장 화각자료에 대하여(카타야마 마리코 고려미술관 학예연구원) △고려미술관 소장 교피이충분 연구(최영숙 옥덕대 강사) 등 논문이 발표됐다. 노덕현 기자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얇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돌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전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됨,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열침의효능 헬스벨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속됨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복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생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마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속됨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속됨(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가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현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개, 오추베개등 자매품다양)